

2. 마을의 역사

1450년대에 김원창(金源彰)이라는 선비가 이 마을을 개척할 당시 고을 형태가 말(斗)과 같이 생겼다 하여 두실(斗室)이라 하였다. 그 후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금천리(金川里)라 하였다. 자연부락인 입암(笠岩)은 약 300년 전에 용궁 김씨(龍宮金氏) 김이복(金以福)이라는 사람이 삿갓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 하여 입암(笠岩)이라 하였고, 진현(進峴)은 약 200년 전에 황전규(黃鉉規)라는 선비가 이 마을에 평해(平海)와 영양(英陽)으로 왕래하는 골목이 있다 하여 진현(進峴)재라 하고, 이 마을을 진현(進峴)이라 하였다.

1765년 무렵에는 강원도 평해군 근서면 금양리에 속했으며, 1871년에 금진리에 편제되고 1912년에 입암리로 개명되었다. 1917년에 평해군 근서면이 울진군 온정면에 편제되면서 강원도 울진군 온정면 금천리로 통합되었다가, 1971년에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금천2리로 분리되었다. 주민들은 두실마을을 ‘말 머리 형국’으로 인식하며, 갑배마을은 ‘배형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갑배마을 주민들은 ‘마을이 배형국이어서 재물을 많이 모으면 배가 가라앉기 때문에 마을을 떠나야 잘 산다’고 여겼다. 마을의 성황당인 수구당 입구에 ‘선주암(仙舟岩)’을 음각한 입석 1기가 있다. 진티마을은 ‘키 형국’으로 여겨 ‘마을을 떠난 사람들은 잘살지 못한다’라고 여겼다.

3. 가구 분포

총 53세대가 거주하며 평해 황씨(平海黃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김녕 김씨(金寧金氏), 용궁 전씨(龍宮全氏), 평해 손씨(平海孫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제5절 금천3리(金川三里)[속명: 노은(老隱)]

1. 마을의 자연환경

금천3리의 속명은 노은이다. 신림동과 노은동의 2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동쪽은 자리곡을 경계로 덕인1리 덕거리와 닿아있고, 서쪽은 기린산을 경계로 조금1리 원수곡과 접해 있다. 남쪽은 박한명의 효자각이 위치한 동당을 경계로 덕산1리 원덕산과 접하며, 북쪽은 오태산을 경계로 광품2리 평전과 접해 있다. 노은마을의 뒤편에 노은서원이 있었다. 마을의 주산은 기린산이며, 안산은 마룡산이다. 마을 앞의 응봉산은 ‘매가 앉아 있는 형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신림마을은 ‘키 형국’으로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2001년에 건립되었다.

2. 마을의 역사

1653년경에 정선 전씨(旌善全氏)가 마을을 개척하여 노은서원(老隱書院)을 만들어 노은(老隱)이라는 마을 이름이 전해지고 있다. 신림은 ‘남평 문씨 터전에 함양 박씨 골맥이’라는 향언에서 남평 문씨가 처음 마을을 개척하고 이어 함양 박씨가 세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남평 문씨들은 모두 마을을 떠났으며, 문씨들이 거주하던 곳에 ‘남평 문씨유허지’를 새긴 비석 1기가 있다. 1765년 무렵에 강원도 평해군 근서면 노은리에 속했으며, 1917년에 울진군 온정면 금천리로 편입되고, 1971년에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금천3리로 분리되었다. 신림(新林)은 문씨(文氏)라는 선비가 산림(山林)이 무성(茂盛)한 골(谷)을 개척하였다 하여 신림(新林)이라 한다. 노은서원이 있던 곳에 강학당이 훼손된 채 현존한다. 강당은 정면 3칸, 측칸 2칸 규모의 팔작기와집이다. 좌측이 도수재이며, 우측이 낙육재이다.

3. 가구 분포

총 25세대가 거주하며 평해 황씨(平海黃氏), 김녕 김씨(金寧金氏), 정선 전씨(旌善全氏) 등이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노은서원(老隱書院)은 1827년(순조 27) 지방 유림이 물재(勿齋) 손순효(孫舜孝), 백암(白巖) 김제(金濟), 백계(栢溪) 김희(金禧)의 학행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애초 온정 반암동에 건립됐으며, 1835년에 온정 노니실 마을로 옮기고 ‘노은서원(老隱書院)’이라 칭했다. 1868년 훼손됐다가, 1878년에 기성 구산리 산록에 수일당(隨日堂)을 건립하고, 1930년에 지금의 자리로 수일당을 옮기고, 사당인 충절사를 건립했다. 후에 운암서원으로 개명했다. 김제는 고려조에 평해군수를 역임했으며, 조선이 건국하자 ‘도해시’를 남기고 절명했다. 정조가 해단(海壇)을 세우고 충개(忠介)의 시호를 교시했다.